

더블 빌

유희웅 × 한스 판 마넨

Seoul Metropolitan Ballet

5 TANGO'S MORE



더블 빌
유희웅 × 한스 판 마넨

Seoul Metropolitan Ballet



더블 빌
유희웅 × 한스 판 마넨

Double Bill
by Ryu Hoi-woong & Hans van Manen

2025년 8월 22일(금) – 8월 27일(수)

세종M씨어터

Fri, Aug 22 - Wed, Aug 27, 2025

Sejong M Theater



노 모어

NO MORE

2024년, 대한민국 서울, 서울시발레단 세계 초연

World Premiere in 2024 by Seoul Metropolitan Ballet, Seoul, Korea

©Hans Gerritsen



5 탱고스 5 TANGO'S

197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 세계 초연

2025년, 대한민국 서울, 서울시발레단 아시아 초연

World Premiere by Dutch National Ballet, Amsterdam, the Netherlands

Asian Premiere by Seoul Metropolitan Ballet, Seoul, Korea

Greeting

Welcome to Seoul Metropolitan Ballet's double bill by Ryu Hoi-woong and Hans van Manen.

Seoul Metropolitan Ballet now celebrates its first anniversary.

Since its inauguration last year with the ambition to mark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contemporary ballet in Korea," the company has, in its inaugural season, introduced iconic works by world-renowned masters in their Asian premieres, while also establishing itself as a reliable creative platform for domestic choreographers and creative teams. At the same time, we have connected Korean dancers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opening doors to new opportunities and taking our first meaningful steps onto the global stage as a hub for K-Ballet.

For this program, we present *NO MORE* by Ryu Hoi-woong and *5 Tango's* by Hans van Manen.

NO MORE, a new creation premiered at the company's pre-inauguration performance last year, returns to the stage this year with an even more refined and compelling structure, building on the enthusiastic response of our audiences.

5 Tango's, the company's second Asian premiere of van Manen's work, follows *Kammerballett*—presented last year—which earned the choreographer's high regard for our artistry and quality, leading to this new collaboration.

Today's double bill celebrating our first anniversary carries special meaning as the result of the trust between our audience and choreographers, brought to life by the dancers and creative team of Seoul Metropolitan Ballet. May this performance serve as both a reflection on our journey over the past year and a milestone signaling our next leap forward.

On this summer evening, we invite you to fully enjoy this special stage—where raw energy meets refined artistry—and to experience a new dimension of contemporary ballet created by Seoul Metropolitan Ballet.

Thank you.

Ahn Ho-sang
CEO,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서울시발레단의 <유희웅 × 한스 판 마넨>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시발레단이 어느덧 창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컨템퍼러리 발레 시대의 개막'이라는 포부와 함께 출발한
서울시발레단은 창단 첫해, 세계적 거장들의 대표작을 아시아 초연으로 소개하는 한편,
국내 창작작진에게는 든든한 제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무용수들을 잇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K-발레의 허브로서
세계 무대를 향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발레단이 준비한 작품은 유희웅 안무가의 「노 모어」와
한스 판 마넨의 「5 탱고스」입니다.

「노 모어」는 지난해 서울시발레단의 창단 사전 공연에서 초연한 창작 작품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한층 밀도 있는 구성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5 탱고스」는 서울시발레단이 아시아 초연하는 한스 판 마넨의 두 번째 대표작으로
지난해 「캄머발레」에서 보여준 예술성과 완성도를 높이 평가한 안무가의 신뢰가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창단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더블 빌 공연은 관객과 안무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시발레단 무용수들과 제작진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이 무대가 지난 1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도약을 예고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여름밤, 뜨거운 에너지와 정제된 미학이 공존하는 특별한 무대,
오늘 서울시발레단이 만들어낼 또 새로운 결의 컨템퍼러리 발레를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정숙

Seoul Metropolitan Ballet



Seoul Metropolitan Ballet made history in 2024 as Korea's first and only public contemporary ballet company. Built on expertise and flexibility, it operates a production-centered system, creating dynamic performances that highlight choreographers, dancers, and their works. Bringing together top artists from Korea and beyond, the company redefines Korean ballet with bold, thought-provoking pieces that capture the spirit of our time. For artists, it opens new opportunities; for audiences, it offers deeper, more immersive experiences. The extraordinary journey of Seoul Metropolitan Ballet begins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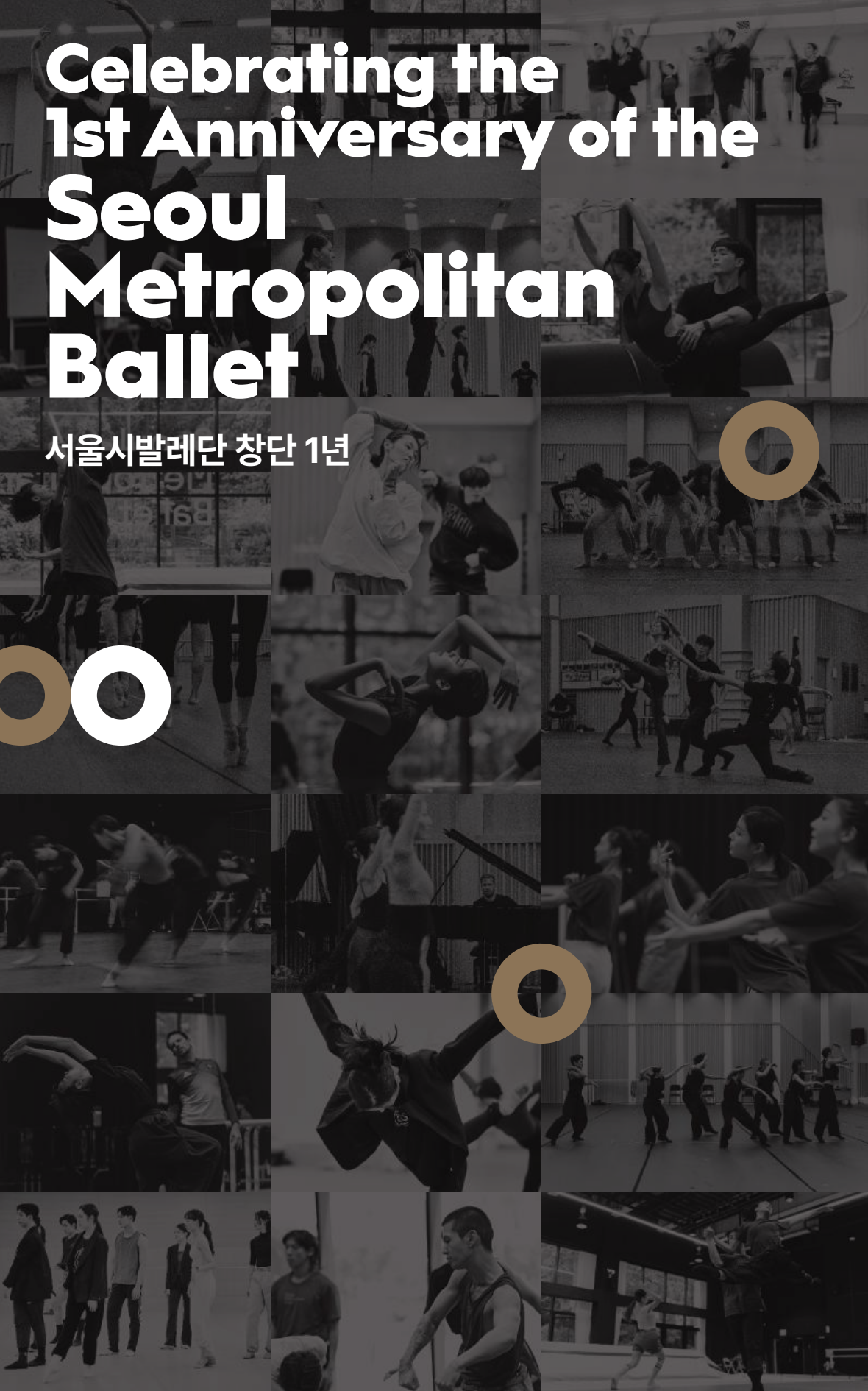


요한 잉거 「워킹 매드」

2024년, 역사적 출발을 알린 서울시발레단은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단입니다. 전문성과 유연함에 기반한 프로덕션 중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발레단은 안무가와 무용수, 작품을 중심에 둔 공연별 맞춤형 프로덕션으로 생동하는 오늘의 발레를 만들어갑니다. 서울시발레단은 국내외 최고의 창작진과 무용수들이 모여 동시대적인 성찰과 사유를 담은 과감하고 대담한 작품들로 대한민국 발레의 혁신을 일구어가고자 합니다. 발레 아티스트들에게는 더 넓은 기회와 가능성을, 관객에게는 더 깊고 풍부한 상상력과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서울시발레단의 특별한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Celebrating the 1st Anniversary of the Seoul Metropolitan Ballet

서울시발레단 창단 1년



One Year of Seoul Metropolitan Ballet

바야흐로, 지금 살아 숨 쉬는 우리 시대의 발레



2024.4.



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

Pre-inaugural Performance *The Rite of Spring*

안성수 「로즈」, 유희웅 「노 모어」, 이루다 「볼레로24」

Rose by Ahn Sung-soo,

NO MORE by Ryu Hoi-woong, *Bolero24* by Lee Lu-da



2024.8.



창단 공연 <한여름 밤의 꿈>

Inaugural Performance *A Midsummer Night's Dream*

주재만 「한여름 밤의 꿈」

A Midsummer Night's Dream by Jae Man Joo



2024.10.



더블 빌 <한스 판 마넨 × 차진엽>

Double Bill Hans van Manen × Cha Jin-yeop

한스 판 마넨 「캄머발레」, 차진엽 「백조의 잠수」

Kammerballett by Hans van Manen,

Ritardscendo by Cha Jin-yeob



2025.3.



오하드 나하린 <데카당스>

Decadance by Ohad Naharin



2025.5.



요한 잉거 <워킹 매드 & 블리스>

Walking Mad & Bliss by Johan Inger



2025.8.



더블 빌 <유희웅 × 한스 판 마넨>

Double Bill Ryu Hoi-woong × Hans van Manen

유희웅 「노 모어」, 한스 판 마넨 「5 탱고스」

NO MORE by Ryu Hoi-woong,

5 Tango's by Hans van Manen

NO MO



RE

STAN
GO'S



NO MORE

일상의 무력감을 헤쳐나오는 힘찬 에너지

유희웅 안무가의 「노 모어」는 2024년 서울시발레단의 창단 사전 공연에서 제작한 신작으로 압도적인 에너지와 재치있는 표현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우리의 '오늘', 현대사회의 일면을 배경으로 안무가 특유의 시선을 담은 작품 「노 모어」는 서울시발레단의 출발을 알리는 힘찬 몸짓이었다. 공연장을 채우는 강렬한 드럼 비트에 맞추어 무용수들은 마구 내달리다 무너지고 다시 달린다. 막막하고 무기력한 사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무용수들은 시종일관 멈추지 않는다. 마침내 무력한 오늘을 넘어 내일로 달려 나가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어떤 장르를 넘어서는 드라마와 카타르시스를 전했다. 구성과 안무 측면에서 한층 탄탄해진 2025년의 「노 모어」는 '오늘의 발레'를 선보이는 서울시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Breaking Through the Helplessness of Everyday Life with Vigorous Energy

Choreographed by Ryu Hoi-woong, *NO MORE* was created for Seoul Metropolitan Ballet's pre-inaugural performance in 2024, earning an enthusiastic reception for its overwhelming energy and witty expression. Set against the backdrop of contemporary society and infused with the choreographer's distinctive perspective, *NO MORE* became a powerful declaration of the company's beginning. To the pulse of an intense drum beat filling the stage, dancers sprint, collapse, and rise to run again. Though rooted in a world marked by emptiness and lethargy, they never stop moving. Ultimately, their relentless drive toward tomorrow transcends the inertia of today, delivering a drama and catharsis that defy genre. The 2025 staging of *NO MORE* will affirm its place as a solid and enduring work in the company's repertoire.

E

동화적 판타지나 우아한 동작과는 거리가 먼
'동시대의(Contemporary) 춤'은 대중이 인식하는 발레의 범위를
순식간에 확장한다.

— 송준호 / 댄스포스트코리아



Contemporary dance—far removed from fairy-tale
fantasy or graceful gestures—instantly expands
the boundaries of what the public imagines ballet to be.

— Song Jun-ho, Dance Post Korea



유희웅

유희웅은 국립발레단 활동 후 뮤지컬과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에서 안무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본인만의 안무 영역을 확장해가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그만의 위트 있는 시선으로 풀어내는 작업들로 주목받았다. 2014년에 발표한 <비겁해서 반가운 세상>은 대한민국발레축제 우수작으로 꼽히며 불가리아 등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그 외 주요 작품으로는 <팔리아치>, <노 뉴스>, <치얼스>, <라이프 오브 발레리노> 등이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경희대학교에 출강중이며, 유희웅리버티홀 예술감독으로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Ryu Hoi-woong

Ryu Hoi-woong began his career with the Korean National Ballet and has since expanded his work as a choreographer across various performing arts genres, including musicals, plays, and operas. Known for his witty perspective on contemporary social issues, he continues to develop a unique choreographic voice. *A Cowardly Pleasant World*, a piece created by Ryu in 2014 was selected as an outstanding work at the Korea Ballet Festival and received enthusiastic acclaim abroad, including in Bulgaria. His other notable works include *Pagliacci*, *No News*, *Cheers*, and *Life of a Ballerino*. He currently teache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Kyung Hee University, and serves as the artistic director of Ryu Hoi-woong Liberty Hall.

CREATIVE

크리에이티브



조일경 Jo Il-kyung

무대 디자이너 Set Designer

- 스탭제작 소속 무대 디자이너
- 서울라이트 한강빛섬축제 <루미너스 웹> 디자인
- 고궁문화축제 <발레 + 수제천> 무대 디자인 외 다수
- Stage designer of Staff Masterpiece
- Designed *Luminous Web* for Seoul Light: Hangang Bitseom Festival
- Stage designer for *Ballet + Sujecheon* at the Royal Culture Festival and many others



정윤민 Clelia Younmin Chung

의상 디자이너 Costume Designer

- 라실루엣드유제니 & 레어공일 대표 디자이너
- 국립발레단 <하난설현>, 김주원의 <탱고발레>, <연리지>, 예술의 전당 기획 오페라 <춘향탈육>, <가면무도회>, <피가로의 결혼>, <토스카> 외 다수 작품 의상감독
- Designer of La Silhouette de Eugenny and RARE01
- Costume director of Korea National Ballet's *Heo Nanseolheon*, Kim Joo-won's *Tango Ballet* and *Yeonriji*, Seoul Arts Center's *Chunhyang Breaks Out*, *Un Ballo in Maschera*, *The Marriage of Figaro*, *Tosca*, and more

김건재 Kim Geonjay + 최승원 Nthonius + 이원석 won.

음악 Music



김건재 Kim Geonjay

- 밴드 실리카겔
- 그룹 시라카미 우즈
- 그룹 SETSETSET
- Member of the band Silica Gel
- Member of the group Shirakami Woods
- Member of the group SETSETSET



최승원 Nthonius

- KPOP 프로듀서
- 그룹 시라카미 우즈
- KPOP Producer
- Member of the group Shirakami Woods



이원석 won.

- 콜렉티브 studioPHASE
- 그룹 SETSETSET
- KBS교향악단
- Member of Collective studioPHASE
- Member of the group SETSETSET
- Member of the KBS Symphony Orchestra

DANCERS

출연

특별 출연

시즌 무용수

강경호(Kang Gyeong-ho)

강다영(Kang Da-young)

오진주(Oh Jin-ju)

이정우(Lee Jung-woo)

정은성(Jung Eun-seong)

이은수(Lee Eun-soo)

강정아(Kang Jung-a)

원진호(Won Jin-ho)

이지영(Lee Ji-young)

최목린(Choi Mok-rin)

김영민(Kim Young-min)

이유범(Lee Yu-beom)

이해나(Lee He-na)

5 TANGO

강렬하고도 정교한 움직임, 탱고와 발레의 완벽한 조화

1977년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에서 초연한 '5 탱고스'는 전 세계 많은 발레단의 레퍼토리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무대에 올라가고 있는 한스 판 마넨의 대표작 중 하나로, 2025년, 서울시발레단이 아시아 초연으로 소개한다. 이번 무대는 서울시발레단이 지난 해 아시아 초연한 '캄머발레' 무대의 예술성과 완성도에 대한 한스 판 마넨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이어 선보이는 그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5 탱고스'는 한스 판 마넨이 우연히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매료되어 단 2주만에 완성한 작품으로 '탱고와 발레가 완벽히 결합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열정적이고 강렬한 탱고의 움직임을 발레의 정교하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승화시킨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서울시발레단을 통해 판 마넨의 작품을 처음 만나는 관객들도 다시금 매혹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Powerful Precision: A Perfect Union of Tango and Ballet

Premiered in 1977 by the Dutch National Ballet, *5 Tango's* is one of Hans van Manen's most celebrated works, a piece that continues to be performed worldwide and is now being introduced to Asia for the first time by Seoul Metropolitan Ballet in 2025. This production carries particular significance as it follows on the heels of van Manen's *Kammerballett*, which the company presented in its Asian premiere last year. The success and artistic excellence of that production earned van Manen's trust, paving the way for this new collaboration. Inspired after hearing the music of Astor Piazzolla by chance, van Manen was so captivated that he completed *5 Tango's* in just two weeks. Widely regarded as "the only work in which tango and ballet are perfectly fused," the piece transforms the passionate, intense movements of tango into the refined elegance of ballet. Timeless in its appeal, *5 Tango's* is certain to captivate even those experiencing van Manen's artistry for the first time through Seoul Metropolitan Ballet.

'S

「5 탱고스」는 관능적인 탱고의 세계에 대한
뛰어난 오마주로, 인간의 감정을 움직임으로 승화시키는
판 마넨의 천재성이 빛나는 작품

— Bachtrack



5 Tango's is a brilliant homage to the sultry world
of tango, brought to life with Hans van Manen's genius
for distilling human emotion into movement.

— Bachtrack



한스 판 마넨

현대 무용계의 살아있는 전설 안무가 한스 판 마넨은 무용수로 커리어를 시작해 1955년 첫 안무작을 발표, 이후 네덜란드의 두 주요 무용단인 NDT와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을 번갈아 가며 상주 안무가로 활동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헌신과 업적을 인정받아 유럽 최고 권위의 에라스무스 상, 브누아 드 라 당스 평생 공로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받았다. 사람 간의 관계를 주목하며 단순성과 음악성에 근간을 두는 판 마넨은 '춤의 몬드리안'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방송 매체를 포함해 150여 편에 이르는 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 90개가 넘는 무용단에 의해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Hans van Manen

Hans van Manen, a living legend in contemporary dance, began his career as a dancer and presented his first choreography in 1955. He went on to serve as a resident choreographer for both of the Netherlands' leading dance companies—the Nederlands Dans Theater and the Dutch National Ballet. In recognition of his lifelong dedication to the arts, he has received numerous prestigious honors, including the Erasmus Prize and the Benois de la Danse Lifetime Achievement Award. Focusing on human relationships and grounded in simplicity and musicality, van Manen has earned the nickname "the Mondrian of dance." His body of work, which spans over 150 pieces including those created for broadcast media, continues to be performed by more than 90 dance companies around the world.

CREATIVE

크리에이티브



Rachel Beaujean

스테이지 Stager

-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 부예술감독
- 한스 판 마넨 재단 예술감독
- 전)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 수석
- Associate Artistic Director of Dutch National Ballet
- Director of Hans van Manen Foundation
- Former principal dancer of Dutch National Ballet



Feline van Dijken

스테이지 St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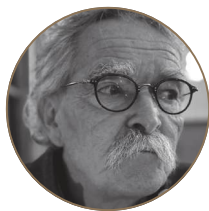
- 한스 판 마넨 스테이지
- 조지 발란신, 윌리엄 포사이스, 지리 킬리안 등 다수 안무가 작품 공연
- 전) 독일 바이에른 주립 발레단, 뒤셀도르프 발레단 무용수
- Stager for Hans van Manen
- Performed in works for George Balanchine, William Forsythe, Jiří Kylián and more
- Former dancer of Bavarian State Ballet and Ballett am Rhein



Jean-Paul Vroom

의상 디자이너 Costume Designer

- 비주얼 아티스트 및 공연 디자이너
- 한스 판 마넨 다수 작품 세트 및 의상 디자인
- Visual artist and theater designer
- Designed sets and costumes for many works of Hans van Manen



Bert Dalhuijsen

조명 프로그래머 Lighting Programmer

- 조명 디자이너 및 프로그래머, 사진 작가, 무대 디자이너
-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 상임 조명 디자이너
- 한스 판 마넨, 조지 발란신 외 다수 작품 작업
- Lighting designer and programmer, photographer, stage designer
- Resident lighting designer of Dutch National Ballet
- Worked with Hans van Manen, George Balanchine and more

DANCERS

출연

객원 수석 최영규(Choi Young-gyu)

특별 출연 김소혜(Kim So-hye)

시즌 무용수 김여진(Kim Yeo-jin)

류형수(Ryu Hyung-soo)

원진호(Won Jin-ho)

이지영(Lee Ji-young)

조희원(Cho Hee-won)

프로젝트 무용수 강미호(Kang Mi-ho)

김영민(Kim Young-min)

박하은(Park Ha-eun)

윤오성(Yoon O-sung)

이해나(Lee He-na)

최목린(Choi Mok-rin)

김유식(Kim Yoo-sik)

남윤승(Nam Yun-seung)

오진주(Oh Jin-ju)

이유범(Lee Yu-beom)

정은성(Jung Eun-seong)

PLAYLIST

음악

1장 1st Movement	2장 2nd Movement	3장 3rd Movement	4장 4th Movement	5장 5th Movement
Todo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것	Mort 죽음	Vayamos al Diablo 악마에게로 가자	Resurrección del Ángel 천사의 부활	Buenos Aires Hora Cero 부에노스아이레스의 0시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

아르헨티나의 작곡가로, 전통적인 탱고 음악에 재즈와 클래식 요소를 결합하여 '누에보 탱고'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 그의 음악은 복잡한 화성과 즉흥 연주를 특징으로 하며, 탱고를 단순한 춤 음악에서 예술적인 콘서트 음악으로 발전시켰다. 피아졸라의 음악은 탱고의 전통적인 리듬과 선율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 한스 판 마넨은 이러한 피아졸라의 음악을 듣고, 그의 음악에 매료되어 단 2주 만에 '5 탱고스'를 완성하였다.

Composer

Astor Piazzolla

Astor Piazzolla was an Argentine composer who revolutionized traditional tango by blending it with elements of jazz and classical music, creating a new genre known as "Nuevo Tango." His music is characterized by complex harmonies and improvisational flair, elevating tango from a popular dance form to an artful concert genre.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al rhythms and melodies of tango, Piazzolla opened the door to new artistic expression. Choreographer Hans van Manen was so captivated by Piazzolla's music that he completed *5 Tango's* in just two weeks.



GUEST PRINCIPAL DANCER

객원 수석 무용수



최영규 Choi Young-gyu

- 현)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 수석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졸업
- Current principal dancer of Dutch National Ballet, the Netherlands
- Bachelor's Degree in Balle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PECIAL GUEST DANCERS

특별 출연 무용수



강경호 Kang Gyeong-ho

- 서울시발레단 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 中 '노 모어' 주역
-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은상 (2022)
- Mnet 스테이지 파이터 최종12인 선발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수료
- Principal dancer in Seoul Metropolitan Ballet's Pre-inaugural Performance *The Rite of Spring - NO MORE*
- Seoul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Silver Prize
- Finalist of Mnet *Stage Fighter*
- Undergraduate of Ballet maj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김소혜 Kim So-hye

- 전) 서울시발레단 24시즌 무용수, 미국 페리댄스 컨템퍼러리 댄스 컴퍼니 무용수
- 서울시발레단 창단 공연 <한여름 밤의 꿈> 주역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졸업
- Former 24 Season dancer of Seoul Metropolitan Ballet, Peridance Contemporary Dance Company, USA
- Principal dancer in Seoul Metropolitan Ballet's Inaugural Performance *A Midsummer Night's Dream*
- Bachelor's Degree in Balle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이은수 Lee Eun-soo

- 서울시발레단 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 中 '노 모어' 주역
- 전) 스페인 국립 발레단 솔리스트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졸업
- Principal dancer in Seoul Metropolitan Ballet's Pre-inaugural Performance *The Rite of Spring - NO MORE*
- Former soloist of National Ballet of Spain
- Bachelor's Degree in Balle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ASON DANCERS

시즌 무용수



강다영 Kang Da-young

- 전) 서울발레시어터 솔리스트
- 이화여자대학교 발레 졸업
- Former soloist of Seoul Ballet Theater
- Bachelor's Degree in Ballet, Ewha Womans University



강정아 Kang Jung-a

- 이화여자대학교 발레 재학
- Undergraduate of Ballet major, Ewha Womans University



김민경 Kim Min-kyung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졸업
- Bachelor's Degree in Balle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김여진 Kim Yeo-jin

- 전) 독일 튀링겐 주립 발레단, 브레머하펜 무용단
- 이화여자대학교 발레 졸업
- Former dancer of Thüringer Staatsballett and Stadttheater Bremerhaven Ballett, Germany
- Bachelor's Degree in Ballet, Ewha Womans University



김영민 Kim Young-min

- 전) 국립발레단 객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졸업
- Former guest dancer of Korean National Ballet
- Bachelor's Degree in Balle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남윤승 Nam Yun-seung

- 경희대학교 발레 재학
- Undergraduate of Ballet major, Kyung Hee University



류형수 Ryu Hyung-soo

- 전) 유니버설발레단 단원
- 세종대학교 발레 졸업
- Former dancer of Universal Ballet
- Bachelor's Degree in Dance, Sejong University



박하은 Park Ha-eun

- 전) 국립발레단 준단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졸업
- Former apprentice member of Korean National Ballet
- Bachelor's Degree in Balle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오진주 Oh Jin-ju

- 전) 김용걸댄스시어터, 블랙토텐스컴퍼니 무용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재학
- Former dancer of Kim Yong-gul Dance Theater and Black Toe Dance Company
- Graduate of Choreography maj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Metropolitan Ballet



원진호 Won Jin-ho

- 전) 미국 올란드 발레단 수석
- 한양대학교 무용학 석사
- Former principal dancer of Orlando Ballet, USA
- Master's Degree in Dance, Hanyang University



윤오성 Yoon O-sung

- 전) 서울발레시어터 수석
- 강원대학교 무용학 석사
- Former principal dancer of Seoul Ballet Theater
- Master's Degree in Dance, Kangwon University



이유범 Lee Yu-beom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수료
- Undergraduate of Ballet maj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이정우 Lee Jung-woo

- 전) 국립현대무용단 프로젝트 무용수
- 중앙대학교 무용학 석사
- Former project dancer of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 Master's Degree in Dance, Chung-Ang University



이지영 Lee Ji-young

- 전) 독일 비스바덴 헤센 국립 극장 발레단 솔리스트,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 발레단 종신 솔리스트
- 독일 존 크랑코 발레 스쿨 졸업
- Former soloist of Hessisches Staatsballett, Germany and Ballet national de Marseille, France
- Graduated from John Cranko Ballet School, Germany



이해나 Lee He-na

- 전) 국립발레단 연수단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졸업
- Former trainee of Korean National Ballet
- Bachelor's Degree in Balle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정은성 Jung Eun-seong

- 경희대학교 발레 졸업
- Bachelor's Degree in Ballet, Kyung Hee University



조희원 Cho Hee-won

- 전) 광주시립발레단 상임단원, 필리핀 발레 마닐라 주역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졸업
- Former dancer of Gwangju City Ballet and principal dancer of Ballet Manila, Philippines
- Bachelor's Degree in Balle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최목린 Choi Mok-rin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발레 졸업
- Bachelor's Degree in Balle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PROJECT DANCERS

프로젝트 무용수



강미호 Kang Mi-ho

- 전) 유니버설 발레단 무용수
- 단국대학교 무용과 발레 재학
- Former dancer of Universal Ballet
- Undergraduate of Ballet major, Dankook University



김유식 Kim Yoo-sik

- 전) 미국 페리댄스 컨템퍼러리 댄스 컴퍼니 수석
-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와 전문사 재학
- Former principal dancer of Peridance Contemporary Dance Company, USA
- Undergraduate of Ballet maj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RTISTIC STAFF

예술 스태프



김준범 Kim Joon-bum

발레마스터 Ballet Master

- 전) 서발레단 부예술감독
- 전) 국립발레단 게스트 트레이너
- 전)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 Former deputy artistic director of SEO Ballet
- Former guest trainer of Korean National Ballet
- Former soloist of Korean National Ballet



최정윤 Choi Jung-yoon

발레마스터 Ballet Master

- 전) 국립발레단 공익사업 <꿈나무교실> 강사
- 전)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 Former instructor of Korean National Ballet's Dream Tree Classroom
- Former soloist of Korean National Ballet

PRODUCTION

제작

NO MORE

안무	유희웅
무대디자인	조일경
음악	김건재+Nthonius+won
의상디자인	정윤민
조명디자인	김권
음향디자인	이효원
분장디자인	이승환

5 Tango's

안무	한스 판 마넨 Hans van Manen
음악	아스토르 피아졸라 Astor Piazzolla
의상디자인	장 폴 브룸 Jean-Paul Vroom
세트·조명디자인	한스 판 마넨 Hans van Manen
스테이지	라셀 보안 Rachel Beaujean
	펠리네 판 다이컨 Feline van Dijken
조명프로그래머	버트 달후이센 Bert Dalhuijsen

발레마스터 김준범 최정윤

무대감독	장연희
무대조감독	김갑수
무대진행	김강현 권용운 이정국 정영우

조명감독	김권
조명프로그래머	손승우
조명크루	심준석 이서호 전상균 정윤테 정지우 한지완

음향감독	이효원
음향크루	박소민 배준희 정주애 최리안

의상감독	최보윤
의상크루	정혜인 조세리 임현지

무대제작 온스테이지(NO MORE)

의상제작 라실루엣드유제니(NO MORE) 씨앤엘(5 Tango's)

통역	소은정(리허설 통역) 현지은(조명기술통역)
연습사진	윤식스포토
홍보사진	바키
홍보물 디자인	박종필
홍보영상 제작	가치브라더
공연기록사진	윤문성 서울사진관
공연기록촬영	한국영상연합

재활테라피 롤링 앤 웨이브

기획·제작 (재)세종문화회관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발레제작팀

팀장 조혜진
팀원 지영림 지혜진 김지연 안소현 안시원
발레마스터 김준범 최정윤
의상·소품 최보윤
컴퍼니매니저 이은경 정은호

공연DX팀

팀장 김여향
팀원 강봉진 조계성 배유진 하수정 유정아 류다혜 박세현

공연장운영팀

팀장 한성국
팀원 전윤선 최병훈 이정연 임아라 강민재 강민선 김지성 최민주 차주윤 김지연 유혜리 이보람

무대기술팀

팀장 김수현
책임안전관리자 이종덕
무대감독 이민재 유병근 이기훈 장연희 정보배 김동현 김동균 이준 주무형 전새미 송은지
무대기계 안종철 김상두 서민원 김정 박정길 전해연 이민우 유지수 서동진
음향 김우람 조영진 이효원 강병권 김경민 채소영 남윤수 김단경 박창순 최은식
조명 노준식 김학철 조현권 김권 설정식 김정태 양용환 변호연 김태진
영상 배준호 한완주 장인표 류병현
의상·소품 변미라 천지연 곽내영
무대행정 양준혁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이승미
팀원 김석경 윤문성 신대섭 손귀영 한채현 이재호



S
2
5

e J o n
e a s o

g n
세종시즌



Double Bill

한스 판 마넨 × 허용순

Kammerballett

Under The Trees' Voices

안무 | 한스 판 마넨 Hans van Manen
연주 | 허용순 Hue Young-soon

2025.
10.30Thu —
11.2Sun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발레단



